

축적된 기술력 바탕 PET필름생산 본격화 적극적 해외투자로 세계적 일류기업 도약 다짐

국내시장 경제의 악화로 가장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은 아마도 서민들이 아닌가 싶다.

언론 매체 어느 것을 들여다보아도, 누구를 붙잡고 이야기를 해보아도, 한결같은 이야기는 “살기가 너무 힘들다”이다. 대기업들도 하루아침에 무너져 가는 현실에서 2차산업이라는 특성상 중소기업이 많은 우리 포장업계의 현실은 더욱 어렵기만 한 것이 사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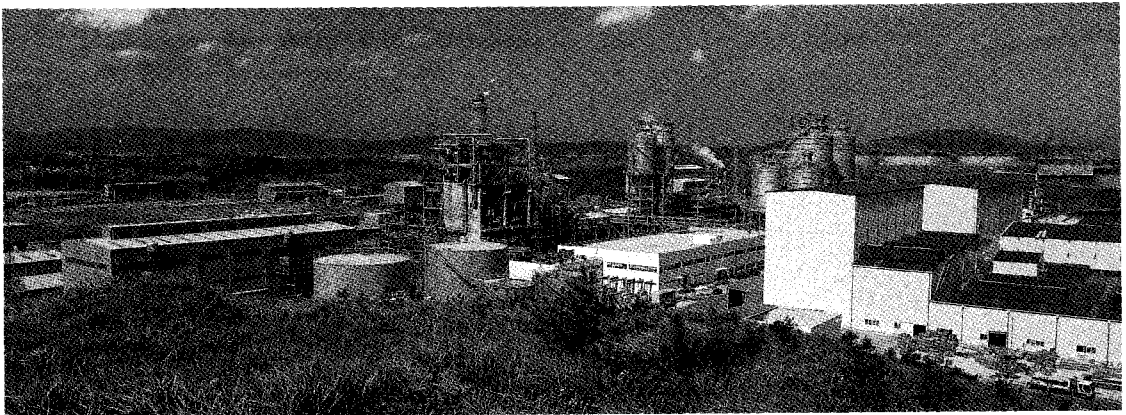
이처럼 국가부도라는 말이 공공연한 때 국가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수출을 통한 매출증진이 가장 보편적이면서도 확실한 해방구라는 것은 더할 나위없는 진실일 것이다.

많은 포장업체들을 취재하며 느낀 어려움이 겨울 한파에 더해 더욱 춥게만 느껴지던 날 찾은 (주)고합은 국내에서보다는 세계적인 기업으로서의 명성을 쌓아가고 있는, 그래서 국내 경기의

침체가 어렵기는 하지만, 그다지 막연하지는 않는 따끈한 말을 전해들을 수 있는 업체였다.

1966년 설립되어 그동안 원사 및 수지 생산에 주력해 온 (주)고합은 97년 하반기부터 그동안 쌓아온 PET에 대한 기본적인 기술적 노하우를 바탕으로 PET 필름생산에 돌입했다.

“그동안 원사 및 수지를 중점적으로 생산해 왔으나 원사 자체의 수익성이 낮아 고부가가치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자연스럽게 물망에 오르게 된 것이 PET필름 생산업이었습니다. 15년 넘게 축적된 기술과 타사와 다르게 원료적 측면에서의 자급능력이 충분하므로 수익성있는 사업이라는 판단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라는 최효근 전무이사는 원사에서 쌓아온 가공기술을 바탕으로 기술력으로 승부해 연 15만톤 이상의 생산력을 보유한 PET 필름 전문



▲ (주)고합의 울산구조재구축공장 전경



▲ (주)고합의 양갑석 대표이사

업체로 성장할 계
획임을 밝혔다.

양갑석 대표이
사가 임직원들에
게 늘 강조하는
것처럼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제품을 만들자'라
는 방침을 세우고
있는 (주)고합은
PET필름생산분
야가 워낙 경쟁이

치열한 분야임과 동시에 선발업체들이 모두 세
계적으로 유명한 업체들인만큼 혼이 들어간 제
품의 생산을 통해 후발업체라는 불리함을 극복
해가고 있다.

경쟁이 치열한 PET필름업계에서 살아남기 위
한 (주)고합의 경쟁력은 원료적 측면에서의 자
급능력과 함께 원사에서부터 쌓아온 기술력이라
할 수 있는데, (주)고합은 이를 더욱 발전시켜
신기술개발로 연결해가기 위해 3개의 연구소를
두고 있다.

대덕연구단지 내에 위치한 중앙연구소는 화
학, 섬유, 신소재를 주로 연구하는 곳으로 화학
연구소는 정밀화학, 생명공학연구를 위해 설립
되었다. 현재 연구분야를 고분자 신소재 및 에너
지 분야까지 확대하고 있으며 해외 유수의 연구
소와 기술협력체제를 유지하고 있기도 하다. 정
밀화학 분야에서 관심을 끄는 것은 1990년 11
월 개발한 생분해성 플라스틱(PHA)으로 국내
외 특허를 6건 출원, 등록 중에 있다.

섬유분야에 대한 연구를 담당하는 섬유연구소
는 스판텍스원사와 결합사같은 고부가가치 원사

를 개발하는 한편, 새로운 합성섬유를 개발하고
특수 직물과 편물을 연구해 염색마무리 기술을
향상시키고 있다.

(주)고합의 사업다각화를 목적으로 5개분야에
서 연구개발 및 사업화를 추진하고 있는 신소재
연구소는 무공해 셀룰로오즈, PEN수지, PLA-
SMA, 회토류 등을 주요 연구 아이টে으로 해 국
내외 유수기관과의 프로젝트 협력체제를 구축하
고 있으며 정보 네트워크 등에 의한 기술정보 습
득 및 응용기술개발을 진행 중이다.

이밖에 의왕공장 내에는 섬유연구소가 설치되
어 있어 신소재 섬유를 개발하고 있으며 울산공
장 내에는 Polymer 연구팀이 구성되어 수지의
개발에 전력하고 있다.

수출에 비중이 많아 (주)고합 자체적으로 느
끼는 어려움은 그리 크지 않지만, 어려운 국내
경제 상황을 정상화하고 원가를 절감하기 위해
1991년 설립한 울산구조재구축공장을 최대한
활용하고 있는데, (주)고합은 이를 통해 타원료
메이커보다 국제경쟁력을 갖추고, 물류코스트를
낮출 수 있었다.

울산단지 구조재구축공장은 탱크로리와 저장
탱크를 여러 번 거치고 포대에 포장해 원료창고
로 운송하던 종전의 물류방식에서 벗어나 네차
레에 걸친 운송과정을 파이프로 연결해 공기수
송방식으로 이동시켜 물류코스트를 절감하는 한
편, 한 공장 내에서 모든 공정이 마무리되어 이
로 인한 경쟁력이 확보되어 있기도 하다.

최근 해외시장으로의 폭넓은 진출을 적극 추
진하고 있는 (주)고합은 지난 97년 1월 1일부터
독일의 EMTEC(European Multi-media
Technologies) 마그네틱스사에 대한 전액 투자
를 실시해 인수, 경영에 돌입한 첫해부터 상당한

혹자를 기록함으로써 독일 현지에서도 글로벌 협력경영의 좋은 사례로 일컬어지고 있다.

(주)고합이 독일 최대의 화학그룹인 BASF로부터 인수한 세계 최대의 마그네틱 테이프 생산 업체인 EMTEC은 올해 상반기에만 매출 DM7억(US\$4.2억), 이익 DM 1천4백만(US\$840만)을 실현했으며 연말까지 DM15억(US\$9억)의 매출과 최소 DM3천5백만(US\$2,100만)의 이익달성이 확실시되고 있다.

EMTEC의 이같은 실적은 지난 몇 년간 연간 매출 DM 10~11억, 손실 DM 1.4천만~3천만에 비해 엄청나게 개선된 것인데, 이는 협력경영 체제하에서 현지 경영진과 노조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노력·환차이익과 회사 내부의 구조 조정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EMTEC은 앞으로 매년 10% 이상씩 매출을 늘려 2천년대에는 20억 DM 이상의 매출을 달성하기 위해 연구개발비를 대폭 확충해 신제품 개발과 신규시장 개척에 주력키로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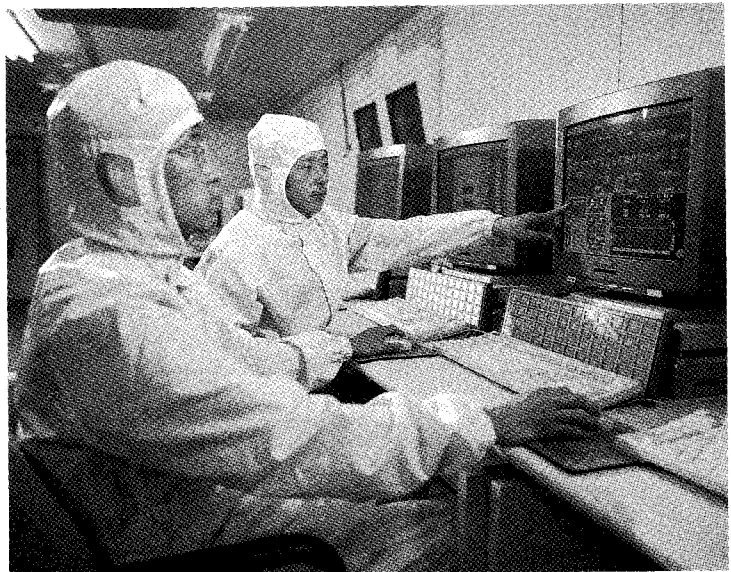
이를 위해 제품에 있어서는 디지털 Betacam·차세대 마그네틱 테이프 카트리지·Copy Secure Paper(복사 방지용 페이퍼)·잉크젯 프린터용 Foil(금박)·특수 연마 테이프·리튬 이온 배터리용 전극사업 등을 확충하고 MDVC(Mini Digital Video Cassette)·D-VHS(Digital VHS Cassette) 등의 새로운 상품을 개발키로 했으며 재녹음 가능용 DVD의 출시 준비를 완료했다. 한편, EMTEC 마그네틱스사는 기존 세계 각국의

30여개 판매법인 외에도 동남아 지역의 판로확장을 위해 홍콩·싱가포르·호주 등지에 자회사를 설립했고, 남미지역은 브라질 자가공장 및 현지 판매법인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판매확장에 나설 계획을 가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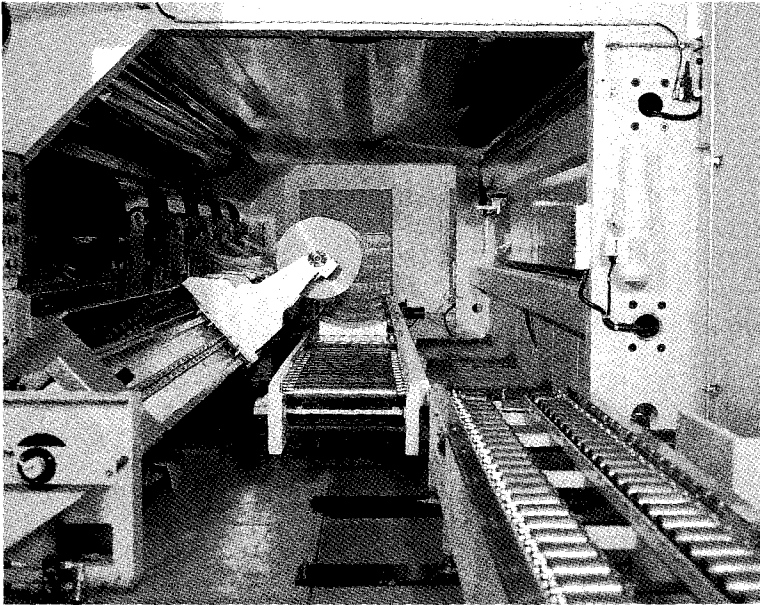
많은 기업들이 경영난에 봉착해 인원감축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주)고합은 신입사원을 모집해 교육 중인데 자체 내 연수 프로그램을 통해 연수를 받으면서 고합맨으로서의 자세를 배우는 것을 시작으로 기초공정 전문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게 되면 각자 맡은 바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주)고합의 정직원이 되면 분기별, 직급별, 직능별 사원재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매년 교육을 받게 되는데 최근에는 전산교육과 원가교육에 치중하고 있다.

교육 뿐만 아니라 사원복지에도 많은 관심을 두고 있는 (주)고합은 일상적인 모임으로 산악



▲ 첨단화되어있는 (주)고합의 기술연구시스템



▲ (주)고합의 생산라인

선진화 및 고급화 수요에 따라 높은 성장이 기대되는 고부가가치 필름으로 최근 고부가가치 사업에 많은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주)고합의 새로운 투자대상 품목으로 주목받고 있다.

Nylon Film의 세계 최대시장인 일본 진출을 목표로 하는 (주)고합은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국내 PET필름 시장의 장악은 물론, 세계일류기업으로의 도약을 위한 추스름에 여념이 없다.

또한 필름과 같이 생산에 들어간 A-PET Sheet는 안정된

생산 및 우수한 물성으로 현재 국내외의 유저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으며 주문량이 쇄도하고 있어 98년 내 추가증설을 예정하고 있기도 하다.

IMF시대가 도래하면서 국내의 모든 시장이 침체되어 있어 더욱 힘들기만 했던 지난 97년을 끝을 보내며 98년 새해의 희망을 찾아볼 수 있는 시간이었다. ☺

윤지은 기자

회, 불령모임, 낚시 등의 동우회를 조직해 임직원간의 유대관계를 두텁게 하고 있으며 전략적인 사원복지정책으로 각 공장단지 내에 복지관과 아파트를 건립해 무주택 문제를 해결하고 있으며 현재 울산공장에 사원아파트를 건립 중이다. 또한 장학제도 등 사원들에게 직접적이고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고 있어 복지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향후 유저의 요구에 맞는 필름의 개발에 최선을 다해 커스터머와 하드라인을 연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기술력 확보를 통해 세계일류기업으로 발돋움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주)고합은 앞으로 NYLON FILM의 생산에 돌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NYLON FILM의 경우, 탁월한 강인성과 기계차단성을 지니고 있고, 이를 적용해 진공포장, 레토르트 살균포장, 기체충진포장 등의 최첨단 식품포장 분야에 널리 적용되고 있으며 포장의

월간 「포장계」
정기구독 신청 및 광고문의
편집실 (02) 780-9782